도자기와 그림의 어우러짐

◇경희 45주년 도예·미술전을 보며

장 문 호
〈산업대 교수·도예과〉

도예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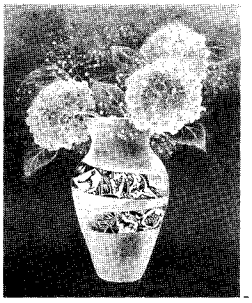
경희 도예의 흙 물레가 가동한지 26개 성상(67년11월24일. 요업공예과 20명으로 신설)의 오늘을 담고 있는 도예작품들은 진정한 창작자의 길에서 또는 혁명적인 외모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예술적인 질서와 감수성의 모색을 들어내 보여주고 있다.

전시품에서 보이고 있듯이 병, 변형 항아리, 그림도판등에는 명백히 전통을 기초로 하는 안정된 핸갈림도 없는 도예품도 있지만, 강수화의 둔탁한 길은 진사안료(辰砂顔料)의 '진사호'는 노화(老化)의 주름이 아니라, 불타오름의 잠재인 불씨를 안은 삶의 무상감을 간직하고 있으며, 서길용의 '한국인의 산'은 그가 창작한 곡물상감장식과는 또다른 회화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현국의 '양태'는 편화된 기성관념에서의 항아리를 떠나, '정립(鼎立)의 원리'에 의한 온유한 속삭임을 담고 있다. 그리고 김경한의 '샤'은 울창한 숲속의 유기적인 나무들의 리듬을 시각화한 장식이고, 육재수의 '진사체 백자호'는 흑, 백, 적의 색 대비를 통한 강한 운동감을 기하학의 항아리 형태와 결합시켜 작품성을 높였다. 또한 서국진의 '북합연리문기'는 유새이 고르고 밝으며, 그 발새은 리듬의 반복을 느끼게 한다. 파도 머리가 없는 물결의 반복은 강 기슭을 치는 파도의 본질을 시각화한 작가의 정념이다. 김장옥의 '무제'는 내포하는 소용돌이 장식으로 공간의 안정된 균형을 추구하고, 한석호의 '혼적'은 편화된 전통적인 수법과 형태에 관한 새로운 시도와 풍아한 정취를 담고 있으며 이김진의 '가죽'도 그와같은 맥락에서 성공적이다.

한편 장진의 'MEMORY-94'는 단순화를 추진시킨 간결한 형태에 유동적인 율동의 원리를 가함으로써 유기적인 형태를 추구하였고, 노경조의 '철유과방'은 4각형의 무기적인 추상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정동준의 '통일을 염원하는 도자조각'은 산의 유기적인 형태가 지닌 내재력과 장중한 리듬을 느끼게하는 생기충만한 작품이다. 강완주의 '무제'는 백의 핵을 유희하며 변형하는 율동의 표현이며, 양동엽의 '무제'는 첨단의 방향성을 지닌 물질속에 운동의 잠재력을 담고 있다. 그리고 고공에와 또 다른 세계에서 그것과 고리를 맺고 융도에 의한 규정에서 해방된 물체(objet)를 소산한 김종철의 '율동'과, 이경진의 '모델림 50'이 오늘의 시대상황의 추이에 서서 도예의 기성의미와 효과를 벗어난 새로운 조형세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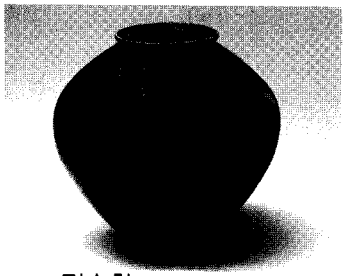
미술초대전

예술에서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문화의 영역에서 현시점은(現時點)은 방향전환의 긴박감에 숨을 몰아 쉰다. 그 사이 이것 저것 슬하게 밀려 온 미술사조의 영향과 구미회화등속의 모방병폐가 판을 치는데다 가 작가의 심오한 예술관의 터전이 마련됨도 없이 얄팍이 없는 순수미술대량은 물론이요, 거기에 맞장구치는 계보 및 현대성의 시비도 일고 있어 그 공과를 탓하기에 앞서 '자기'들의 오후', 국홍주의 '곡뉘', 김석기의 '설악산의 서설', 김대원의 '가을', 이선열의 '鄕Ⅱ', 최상훈의 '五月', 정형열의 '중경'. 김태정의 '만주', 김현승의 '해변에서'등의 작품에서 엿 볼 수 있듯이, 그 들 작가들이 만나는 자연의 경관미에 대한 경탄과 감동은 때로 예술창작의 동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작품에서는 정감의 시현



이인원
1993年作
〈정물〉

도예과 새로운 예술적 질서와 감수성 모색
풍부한 독자성 미술적 영원성 부여 미교과



강수화 1983年作〈진사호〉

의식해야 할 성찰(省察)이 있어야 할때가 지금이 아닌가 언젠가 부터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한 오늘의 상황에서 작가로서의 사명감과 열띤 예술의 가치추구를 그들나름대로의 존재방식 중 경희의 창작정신에서 28개 성상(65.12.17. 미술교육과 신설)의 조형세계를 영감(靈感)의 발현으로, 그 형상화로 표방하고 제각기 박력있는 터치로 작품속에 객관화하고 있다. 비슬사만 요컨대 과거의 유산으로서 계승되어온 것과 새로운 것의 항쟁의 역사라고 앙드레 말로(André Malraux)가 말했듯이 전시된 작품에는 오랜 형식의 범주에 속하는 것도 눈에 띈다. 그 형식을 부정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식이 낳아 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볼때 오랜 형식과 새로운 형식의 사이에 하나의 변증법적 발전이 있다는 것이 된다. 그것은 과거를 모두 부정해 버린 작가가 해를 거듭하는 사이에, 반대로 과거부터 계승된 형식에 근접하여 가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그 사이에는 맥락이 놓여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볼때 김치중의 '프로방스의 여름', 김원기의 '영국사(示現)관계가 뚜렷하게 과제로 되던가, 혹은 실제로 정리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들 화제가 보이듯이 자연경상(自然景象)의 변상을 근경, 원경의 대조로 강조하던가, 나무·수목 벼랑등의 경물(景物)의 허와 실을 강약으로 노출 시켜 망원성(望遠性)과 확대성(擴大性)에로의 지향을 강하게 나타내는 화풍을 쫓고 있다.

각 시대에는 각기 다른 세계관과 그것에 수반된 질서를 가지고 있다. 오늘의 상황은 기계를 배경으로 하는 다원적인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기에 혁명적인 외모에 불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예술적 환희를 갈망하고 있는 애호가가 많다. 이는 새로운 예술적 마력을 예술속에 모색케하는 동기가 되었고, 추상미술을 위시해서 오부제,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에 이르기까지의 이 경향은 오늘의 우리를 에워 쌓고 있다. 그리고 이번 초대전에서도 이와같은 경향의 작품들이 극히 풍부한 세계를 구축하고 아카데미즘과 모드와는 또 다른 하나의 독자적인 질서를 지니고 있으며 미술에 영원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단신

한풍렬교수 전시회

「파리중경Ⅱ」드로잉 1993년작

한풍렬(사범대·미술교육학)교수는 오는 25일부터 6월3일까지 인사동 동산방화랑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90년 이래 4년만에 갖는 그의 일곱번째 개인전에서는 전통적 재료로 추상화를 그리던 초기부터 자유로운 실험화등기인 중반기, 동·서양의 감각을 섭렵, 드로잉·실재작업인 요즘까지의 모습을 담고 있다.

□문의 : 733-5877, 6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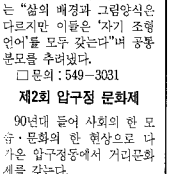
극단 미추 '맥베드'공연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중 하나로 알려진 '맥베드'는 운명이란 이름하에 붓출되는 욕망으로 파멸되는 한 상황을 담해준다.

문예회관 대극장(5월24~30일)

□문의 : 743-5911 745-7828

갤러리 '시온' 개관전



이응노 1987년 作

갤러리 '시온'의 개관전이 열리고 있다. Ⅰ부는 '존들리는 존재, 너의 어둠'이란 부제가 붙은 (고영우전)이며 오늘 막을 내린 Ⅱ부 (작고작가 5인(이응노, 하인두, 최욱경, 오윤, 손상기)전)은 내일부터 오는 6월7일까지 열린다. 이번 작고전은 우리나라 미술계의 거장들의 전시회라 더욱 뜻깊다.

이석우(문리대·사학)교수는 "삶의 배경과 그림양식은 다르지만 이들은 '자기 조형언어'를 모두 갖는다"며 공통분모를 추려냈다.

□문의 : 549-3031

제2회 압구정 문화제

90년대 들어 사회의 한 모습·문화의 한 현상으로 다가온 압구정동에서 거리문화제를 갖는다.

원래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계획이었으나 비가 와서 오는 28일·29일 양일로 미루어졌다.

□문의 : 548-1775

◇제5회 대학주보 시문에 입선

새의 무게

오 정 석
〈국문학과 3학년〉

아이는
새를 묻는다

죽은 어미의
세상이여
이제 돌아올 수 없으리라

하얀 새벽의 안개
출렁이는 갈숲

새 몸을 잘게 흩어 말리는
서늘한 바람 선한 소리
마른 갈대의 얼굴

아프도록 양가슴 부딪는
하늘빛
새의 무게

농그라니 모이어
한 줌
새의 뜻내
슴막히도록 매움게 마신다

한 줌의 뿌만큼
세상을 비우는

앳된 부리
고운 꽃잎으로 가시낸다
새는 갈대의 빈 가슴
가득히 날아간다

홀로
이름 없는 도시
빈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의 작은 입가
아련한
풀내음의 미소

새도
아이를 묻는다

문화강연

개화기(90년대 다음호에는 음악편을 싣고자 한다. 편집자註) 지난 17·19양일간 해해진 수원캠퍼스 방송국의 초청

①90년대 한국영화의 위상 — 이효인(영화평론가)

내년이면 1895년 뤼미에르 형제가 영화를 발명한지 내년이면 꼭 1백주년이 된다. 19세기말 주를 이루던 영화의 흥행성과 1930년에 풍미하던 예술성등 시대에 따라 영화도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20~30년대의 프랑스의 영화운동 및 독일의 표현주의 영화등의 유럽영화는 영화에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사회학적으로 볼때 영화의 주된 관객은 피난민이나 군인 서로 개연성이 없는 군중들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영화산업 발달도 이주민의 나라라는 문화적 특성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영화는 이와같이 사회적 견해, 이데올로기,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한국영화는 외래문화의 무비판적 수용을 표방한 이식문화로 일제시대에 처음 선보였다. 민족문화로서의 인식과 좌절을 거듭하면서 일제의 탄압에 의해 강요된 산업구조와 문화 속에서도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다. 해방직후의 파란과 한국전쟁후의 폐허를 딛고 산업경제가 조금씩 자라나던 1960년대를 전후하는 시기에는 한국영화는 부흥기를 맞이한다. 1960년 이후 침체되다가 70년대에는 완전히 몰락했다는 평가가 있었고 1980년대에 한국영화는 과행성을 보이며 다시 새롭게 출발한다. 1990년을 전후해서 한국영화는 다양한 소재등 새로운 조류를 타고 있다. 사생력이 없는 상태에서 발달하고 있어 여전히 한국영화판에는 할리우드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90년대 한국영화는 영화의 왜소화, 주변화, 국적상실 및 종속화를 맞고 산업의 소프트웨어로서의 기능적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①자구적 영화문화의 생성 ②탈서울 영화문화의 형성 조직화 ③중무교와 독립영화의 정체성 확보 및 배급조직의 확보 ④입체적 영화운동의 전개를 통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화부〉

인터뷰

시와 인생이 부합된 시인의 삶

제5회 대학주보 시문에 당선자 유성호(불문·3)군

제5회 대학주보 시문에 현상 공모에서 '감자꽃'으로 당선을 한 유성호(불문·3)군을 만나보았다.

▲불문인으로서 최초일 뿐 아니라 국문과가 아닌 학우로서 처음 대학주보 시문예현상 공모에 '당선'하였습니다. 다년간 시를 써온 길로 아는데요.

—강릉고 시절, 김주대·이현민·김별아 등의 선배시인들이 머물던 문학회에 있었어요. 당시 국어를 가르치던 심재상(문학평론가·현 관동대 불문과교수)선생님에게 평론을 배우기도 했지만 결국 택한 것은 시입니다.

▲좋아하는 문학작품이나 작가가 있습니까?

—불문학을 공부하면서 '쌩떽쥐베리'의 행동주의와 '어린왕자'에서 보여지는 시적 함축미를 깊이 공부하고 싶고, 에밀졸라의 '제르미날'을 읽으며 세계 최고의 단편소설가라는 명성에 동감했습니다. 또한 소설가 황석영, 시인으로는 고은, 신경림, 곽재구, 안도현, 신동호 등을 좋아합니다. '북처는 소년'의 김종삼 시인은 60년대에 늦깎이로 등단한 이 시대의 모더니스트요 보헤미안 입니다. 그는 암울한 시대의 시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진솔한 몸을 던져서 우리에게 자성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의 시작(詩作)계획은 어떠십니까?

—일상속에 가려진 진실을 형상화한 작품을 보면 가슴이 뛰니다. 그런 작품을 쓰고 싶고 아주 평범한 시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문학적 소양이 있다면 시와 인생이 부합되는 사람이고자 합니다.

〈이유경 記者〉

고객감동경영을 실천하는
서울삐삐·015·
고객위주의 생활속에 편리와 쾌적을 추구하는 서울삐삐 015.
더욱 다양하고 풍요로운 부가서비스로 더욱 친근하고 다정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삐삐·015·
프로야구 속보
경기스코어
경기결과
팀순위
삐삐로 프로야구소식을 알아본다!!

서울이동통신
●대표전화 : (02)5599-114 ●고객상담센타 : (02)5577-015

신세대하트라인
서울삐삐

서울삐삐 015가 국내최초로 개발한 본격 스포츠정보서비스.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최첨단 데이타베이스 시스템과 서울삐삐 015 자체개발 무선호출 자동전환 프로그램의 최적접속시스템으로 본격적인 스포츠정보시대를 펼쳐갑니다.

생활속에서 더욱 편리한—
서울삐삐 015 생활정보서비스

스포츠정보서비스 ●프로야구정보서비스 경기상황 실시간 제공
개인정보서비스 ●바이오리듬서비스 매일 신체/감성/지성리듬 제공
●오늘의 운세서비스 매일 전체/사업/애정운 제공
기상정보서비스 ●일기예보서비스 오늘의 최저/최고기온, 비올 확률
금융정보서비스 ●환율정보서비스 오늘의 $ ¥ 환율 제공(5월 예정)
●증권정보서비스 증권주가, 전국평균 KOSPI/지수등 제공(5월 예정)
대우증권 이동근대리에 ARS로 제공
●은행입출금통보서비스 지정은행에서 입출금시 삐삐호출
신한은행 고객에게 제공(5월 예정)
※서울삐삐 015 가입자만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삐삐 015 고객편의서비스
●온성지동동당시비스 : (02)5533-015
●24시간 고객상담서비스 : (02)5577-015
●삐삐 분실서비스 : 44477 SOV (오류표시)
●요금납부안내서비스 : 통화지동이내, 요금안내청취
●015 전국연결서비스 전국9개도시내 이시·출장시 무료이용
●단말기 고객서비스는 해한 A/S센터 운영(31개소)